

따뜻한 겨울 날씨에 잦은 비까지…농·어가 ‘비상’



을 겨울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강수량이 늘면서 농작물 웃자람과 병해충 발생이 우려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도내 일일

최고기온은 완도 19.3도, 장흥 19.2도, 해남 18.5도, 영광 16.8도 등 각 지점 관측사상 1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

최저기온도 신안 흑산도 11.3도(역대 2

일일 최저·최고기온 평년比 6~13도 ↑…강수량도 역대급

농작물 웃자람·병해충 발생·김 수확량 감소 등 피해

위), 목포 9.4도(3위), 해남 9.1도(4위)로 일일 최저·최고기온 모두 평년보다 6~13도 가량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전남지역의 올 겨울 강수량은 39mm로, 평년대비 25mm가 많은데 이어 최근 내린 비로 기상 관측 아래 1월 중 최대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겨울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선 농가들은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본적으로 동면하지 못한 과일 나무가 생육 등에 지장을 입어 올봄에 꽃을 맺지 못할 수 있고, 시설하우스 작물의 경우 내부 습도가 높아지면 병충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과수 화상병의 발생 위험이 커진 것도 심각한 문제다. 화상병은 전년 겨울이 따뜻했을 때 발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화상병과 같은 세균병의 병원균은 주로 나뭇가지나 나무줄기의 병환부에서 겨울을 냈다가 다음해 봄철 곤충을 통해 매개되는데, 겨울이 따뜻하면 월동곤충이 늘어 확산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밭작물의 피해가 우려된다.

잦은 겨울비에 노출된 보리는 습해에 취약해 서둘러 물빼진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잎이 노랗게 고사하는 ‘황화현상’으로 한해 농시를 망칠 수 있다.

마늘은 벌써 마늘잎 웃자람 현상’이 발

견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이른바 ‘스펀지 마늘’ 등 상품 저하와 병충해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따뜻한 겨울로 전남 어촌마을에도 근심이 깊어가고 있다.

수확철을 맞은 김은 연이은 태풍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20~30%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품질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복 먹이인 다시마 등 해조류는 겨울철 영하의 온도와 적설량에 따라 생육을 좌우하기 때문에 올 겨울 기상고온이 생산농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잦은 강수와 일조부족으로 농작물이 연약해져 있어 갑작스런 한파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상기온에 맞는 농어가별 경영계획과 정부 차원의 농정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가장 살고 싶은 동네 ‘광양시 중마동’

통계청 ‘살고 싶은 우리동네’

아파트 가격·편리한 대중교통

전국 읍면동 가운데 대한민국 신혼부부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동네 1위는 전남 광양시 중마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통계청 홈페이지 ‘살고 싶은 우리동네’ 서비스에서 중마동은 저렴한 아파트 가격과 편리한 대중교통을 원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최

적화된 동네로 나타났다.

2위와 3위는 각각 대구시 월성 2동과 구미시 공단 2동인 것으로 조회됐다.

공동주택비율이 높고 편의 소평시설이 많으며, 면적당 낮은 아파트 가격 현황 조회에 대한 결과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9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광양시는 평균연령 40.8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다.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광양시 중마동은 주민 평균연령이 35.5세로 전국

읍면동 가운데 가장 젊은 편에 속한다.

중마동 중앙에는 시청, 동광양버스터미널, 도심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있으며, 광양지역 전체 학원 268개 가운데 100여 개가 몰려 있고 대형마트 2곳 등 각종 쇼핑시설과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다.

광양시는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장려 시책과 함께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모자 보건사업’, ‘보건소 국가필수 예방 접종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동네 선정에 힘을 보탰다.

‘총선 90일 전’ 내일부터 의정보고·출판기념회 금지

전남선관위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도 사퇴해야”

월16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다면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계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광고출연도 제한된다.

‘中 급성폐렴’ 전남도,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국에서 발생했던 급성폐렴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24시간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집단폐렴 원인은 2002년 중국 등지서 유행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으로, 사스와 유사하다고 알려졌다.

주요 증상은 37도 이상 발열과 기침, 폐렴, 호흡곤란이다. 아직까지 백신이나 예방약이 개발되지 않았고 치료는 면역형체제 투여로 한다.

전남도는 의심환자 발생 시 빠르스, 호흡기바이러스 9종을 신속하게 검사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표본으로 매주 순천, 영광, 장성 등 3개 병의원에 내원한 급성 호흡기 증상 환자의 가검률에서 급성폐렴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7종 등을 검사하는 감시사업 수행으로 신종바이러스 출현을 감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848건의 감시사업을 펼쳤으며, 그 결과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 106건(12.5%),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총 388건(45.8%)을 검출했다.

허성은 기자

총선 90일 전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전남도선관위는 1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90일전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행위를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면 1월16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면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디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털파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